

김우창 비평에 나타난 ‘윤리성’ 연구

- 한용운, 윤동주, 김현승 시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

김 용 하*

차 례

I. 문제제기

III. 나오며

II. 시적 언어의 윤리성

I. 문제제기

김우창은 문학 비평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광범위한 비평가이다. 그의 비평의 특징은 문학작품을 정치학, 미학, 윤리학 등 인문과학 이론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예술의 상징적인 의미 맥락을 재구성하는 것에 있다. 그는 비평의 해석학적 근거를 다양한 이론에서 수용하면서도 그러한 이론적 구성의 중심 항상 ‘문학’을 배치시킨다. 그의 문학관은 인간이 단순히 언어를 통해 구성된 것으로만 보지 않고 사유의 구체성을 보려는 것이다. 특히 그의 비평 초기에 씌어진 시 비평은 시를 이론적 구체의 대상으로 삼아 문학과 사회와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글들이다. 그는 문학을 통해 이론의 심화를 이룩하고, 문학의 역할과 기능을 다루고, 인문학적 사유의 극점에 도달하려

* 부경대학교 강사

고 한다.

기존의 연구는 인물평¹⁾과 서평²⁾과 학위논문³⁾과 ‘메타’비평⁴⁾이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그의 비평에 대한 ‘메타’비평에 한해, 시간의 그에 대한 비평적 접근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대한 메타 비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즉 그의 비평의 철학적인 배경을 규명하고, 철학적 사유와 ‘심미적 이성’간의 성격을 고찰하는 경우와 그의 비평의 철학적 사유와 문학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상환은 김우창의 비평 이념을 ‘초월’의 현상학으로 규정한다. 그의 초월은 “다시 그 존재론적 운동을 가시화시키는 원근법적 거리 내기, 반성에 대한 이름일 수 있다. 그러나 인식론적 반성 절차에 대한 이름이든 존재론적 사태 전

-
- 1) 유종호, 「어느 심미적 이성의 초상-김우창 소묘」,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2001.
 - 2) 김홍규, 「부분과 전체의 변증법」, 『세계의 문학』, 1981, 여름.
김경동, 「이성적 사회를 향한 한국 지성의 사색」, 『세계의 문학』, 1993, 가을.
박광수, 「비평의 창조성」, 『세계의 문학』, 1997, 겨울.
이재선, 「정리와 모색의 이론」, 『문학과 지성』, 1979, 5.
 - 3) 최종길, 『김우창 비평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7, 12.
배미자, 『김우창 비평 원리-타자를 포용하는 글쓰기의 방식』,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7.
 - 4) 김인환, 「20세기 한국 비평의 비판적 검토」, 『기억의 계단』, 민음사, 2001.
김영건, 「심미적 이성과 철학-김우창의 ‘심미적 이성’의 개념」, 『철학과 문학비평, 그 비판적 대화』, 책세상, 2000.
김영민, 「정치적 인간, 인간적 정치 ; 균형과 섬세의 원숙한 배회」, 『오늘의 문예비평』, 1994, 12.
김상환, 「심미적 이성의 귀향」,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민음사, 1999.
권오룡, 「문학의 위엄」, 『문학과 사회』, 1993, 가을.
문광훈, 「구체적 보편성의 모험-김우창의 심미적 이성에 대하여」, 『구체적 보편성의 모험』, 삼인, 2001.
이경호, 「‘칼로카가타이’의 넓이와 깊이-김우창론」, 문학의 현기증, 문학과지성사, 1999.
이태동, 「문학과 심미적 상상력-김우창의 비평 세계」, 『현실과 문학적 상상력』, 문예출판사, 2002.
한 기, 「혼돈 속의 사변; 비판 이성, 혹은 자유 지성의 역사」, 『합리주의의 문턱에서』, 강, 1997.
황호덕, 「체념과 해방」, 『세계의 문학』, 2002.
최유찬, 「김우창 시론(詩論)과 리얼리즘」, 『루카치의 현재성』, 문예미학회, 1998.

개에 대한 이름이든, 초월은 어떤 단순한 이행이 아니다. 초월은 이행이 되 떠나 온 것으로 다시 돌아와 머무는 재귀적 이행⁵⁾이고, 초월적 비상이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하기 이전의 시공간에서 생성될 수 있는 이념적 지점이다. 그의 비평정신의 주요한 키워드인 '초월'의 의미는 '심미적 이성'으로 전환된다. '심미적 이성'은 이성의 독단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 이후의 삶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심미적 이성이 어떤 세계를 구성하는 한 그것이 보여주는 '개념 없는 보편성'은 개념적 사유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배제하는 것은 미리 성급하게 정해진 어떤 전체성의 이념이나 이론적으로 규정된 함목적성일 것이다. 그러나 비록 심미적 이성이 제 나름의 질서를 구성해낸다고 해도 그 질서가 여전히 이성적 질서의 일종이며, 따라서 개념 없는 보편성 또는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⁶⁾

반면에 김영건은 '심미적 이성'의 기원과 개념적 정의를 비판적으로 살핀다. 그는 김우창의 '심미적 이성'이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러한 이론적인 것의 추구가 얼마나 현실에서 구체적인 직접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그는 미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의 관계가 하나의 단일한 개념어로 작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는 '심미적 이성'이 궁극적으로 이성의 범주에 포섭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매개를 통한 전체성으로의 지향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심미적 이성'이 "개념 없는 보편성"없는 이론의 전체성에 귀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우창 비평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특히 '심미적 이성'의 철학적 성격을 살피는 것으로만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그가 문학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편성을 확립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즉 그의 이론적인 지향은 문학작품을 통해 검증되는 과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양상을 획득한 것이다. 그는 문학이라는 구체적인 대상과의 조응을 통해 이론과 실천이 매개되는 수간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려고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론적

5) 김상환, 앞의 글, 388쪽.

6) 김영건, 앞의 글, 158-159쪽.

탐색이 얼마만큼 구체적인 작품 분석과 해석의 전체적 틀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경호는 김우창 비평의 심미적 이성의 의미 그의 문학론에서 발견한다. 그는 “심미적 활동으로서의 문학은 외부적인 기술의 지배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자체의 내부적인 기술을 일정하게 간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그러한 내부적인 기술이야말로 개인의 구체적인 욕망에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전체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⁷⁾”이라고 지적한다. 즉 심미적 이성이 작용하는 문학 행위는 단순한 이성적 작용의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행위 자체에 내재된 심미적 것과 이성적인 것인 상호 연관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한기는 ‘심미적 이성’을 시와 관련해서 살핀다. 그는 “철학적 인식 노력의 핵심 범주가 ‘구체성’과 ‘전체성’으로 요약되는 맥락⁸⁾에서 김우창 비평이 시를 현실 재현의 가장 적합한 장르로 자리잡는 원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지적은 그의 비평의 철학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왜 그가 시와 그리하여 문학의 심미적 이성과 평생을 동반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왜 구체성에 대한 인식(적) 향수를 가졌고 한편으로 인식적 체계의 구성까지를 꿈꾸지 않으면 안되⁹⁾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김우창 비평에서 시의 의미와 개별 작품 분석을 통해 획득된 시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고찰한 것은 아니다. 즉 미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의 실체보다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어떻게 문학 비평에 배치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아울러 김우창이 비평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윤리적 지향의 실체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김우창 비평에 대한 접근은 그의 철학적 글쓰기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가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이론의 위치를 해명하면서도 그의 글쓰기의 중심을 차지한 문학 비평의 실제 비평에 차지하는 시론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동은 “비평적인 태도에 나타나 있는 주목할 만한 그의 특징은 남달리 도

7) 이경호, 앞의 글, 63쪽.

8) 한기, 앞의 글, 346쪽.

9) 한기, 위의 글, 346쪽.

덕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도덕성은 여러 사람들이 순수한 인간 가치에 기초를 두고 의견의 합의로써 이룩한 공적인 삶의 원칙이고, 주체성은 개체가 지니고 있는 전체성-즉 도덕적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 의지¹⁰⁾을 지적한다. 그는 김우창 비평의 비평적 성격을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서 획득된 윤리적 실체에서 규명하지 못한 채, 문학의 제몽성을 드러내는 문학 비평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개한다. 즉 “도덕”과 “윤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김우창의 비평의 “도덕”과 “윤리”가 작동되는 원리를 살피지 못하고 있다.

권오룡은 비평적 엄격함 즉 “도덕적 성실성”이 김우창 비평의 중요하다고 규정짓는다. 그는 “문학의 윤리성을 보편성의 기반 위에 세우고자 하는¹¹⁾” 것에 주목하는 이유를 “문학의 보편성에 대한 김우창 교수의 추구는 문학의 윤리성의 기반을 바로 이 보편성 위에 두고자 하는 김우창 교수의 이론적 입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여 삶과 문학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삶의 윤리성을 보편성의 의지 속에서 찾으라는 칸트의 유명한 정언 명령의 내용을 상기할 때 문학의 보편성 추구는 곧 그것의 윤리성에 대한 추구하고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¹²⁾에서 찾고 있다. 이 역시 김우창 비평의 도덕적 성격에만 주목한 채, 그의 윤리적 성격이 구체적인 현실과의 관계를 명증하게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낸다. 즉 이는 문학의 보편성이 선형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학 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존의 김우창 연구가 문학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심화시키지 못한 것에 주목하여 그의 실제 비평과 시론을 ‘윤리성’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는 한용운과 윤동주와 김현승 시 비평을 통해 시의 ‘윤리적 성격’을 분류하고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결합 가능성을 메타 비평적인¹³⁾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는 그가 2-1에서 한용

10) 이태동, 앞의 글, 361쪽.

11) 권오룡, 앞의 글, 965쪽.

12) 권오룡, 위의 글, 964쪽.

13) 메타 비평은 ‘비평이란 무엇인가?’와 ‘비평에 대한 비평’을 묻는 행위이다. 메타 비평은 “보편적인 이론과 예술의 실제적 정의”를 거부하고, 미적 삶의 복잡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구별과 규범을 추구하는 비평 이론가들에 의해 무시되었던 (비평의) 관계, 병렬, 복합에 주목하고”, “비평의 유형에 대한 유아론적인 고립을 거부”하는 것이다. 메타 비평은 “비평적 탐구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운 시를 <타자의 발견 :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불화>, 2-2에서 윤동주 시를 <선악의 발견 : 개인 윤리의 승인과 사회 윤리의 거부>, 2-3에서 김현승 시를 <경이의 발견 :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공존 >으로 고찰한 것을 구체화시킬 것이다. 그의 시 비평의 경우, 그의 이론적 사유와 시작품이 결합하여 이론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필자가 그의 시론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비평이 이론적 맥락에 함몰되지 않고, 복합적인 사유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문학 작품과 작가의 다원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윤리적 매개를 보여주고자 한다.

II. 시적 언어의 윤리성

1. 타자의 발견: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불화

김우창의 문학 비평¹⁴⁾에서 시는 중요한 장르이다. 왜냐하면 그는 시를 “구체적인 실존의 언어이면서 또 이를 넘어서는 일반적 범주를 그것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생존에 용해되어 있는 만큼을 記述”¹⁵⁾하는 장르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적 언어의 성격을 “구체적인 것을 지향”¹⁶⁾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구체적인 동시에 실존적인 성격을 지닌다. 시는 내면 공간의 제시이고, 사회 현실의 구조를 배경으로 윤리적 의미를 획득하고, 그것은 추상화된 형태로 내재화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의 모든 행위의 의미와

성격을 지닌다. 본고에서 김우창의 시 비평을 메타 비평적인 시각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그의 시 비평의 윤리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시 비평의 올바른 성격을 마련하는 것을 지향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 비평의 회의적인 시각을 넘어, 긍정적인 시 비평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Raval, Suresh, *Metacriticism*,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1, 8장 참조.

14) 김우창, 『전집 1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97.

_____, 『전집 2 지상의 척도』, 민음사, 1981.

_____, 『전집 3 시인의 보석』, 민음사, 1993.

15) 김우창, 「시의 언어와 사물의 의미」, 『전집 3』, 97쪽.

16) 김우창, 위의 글, 95쪽.

가치의 진정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구성하는 문학의 실체는 '심미적인 것을' 통한 '윤리적인 것'에 도달하려는 인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심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이론적으로 구분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이론적인 실천을 위해 매개되는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윤리적 가능성을 심미적 대상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의식은 그가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동시에 의미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선 그의 인식에서 중요한 것인 <심미적 이성>에 내포된 윤리적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미적인 완성에 대한 요구 뒤에는 언제나 실존의 윤리적 자기 실현에 대한 충동이 있다. 실존은 자기 실현을 위한 실천으로서 심미적인 것의 힘에 관심을 기울인다. 심미적인 것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에 대한 인간을 드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의 윤리적 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심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결국 실존의 윤리적 완성에 대한 요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입증된다.¹⁷⁾

그는 심미적 완성을 “실존적 윤리적 자기 실현의 충동”으로 규정한다. 문학 작품이 심미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통과해서 “윤리적 완성”을 도모하는 것에까지 닿아 있다. 그는 심미적인 것에 내장된 절대적인 심미주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절대적인 윤리적인 지향과의 합일을 통해 예술이 지니는 심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사이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¹⁸⁾ 그는 심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동시에 구체적으로 표상한 바를 <한

17) 문광훈, 위의 글, 129쪽.

18) 김우창의 시론에 나타난 심미적인 것과 윤리적 혹은 도덕적 것의 결합 가능성은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I. Kant, Kritik der Urteilskrafts, 59절)”라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즉 인간의 미적 원리는 보편적인 것의 드러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표현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은 선한 것의 보편적인 승인이다. “미는 대상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관 안의 어떤 특별한 종류의 감정과 연합된다. 그런데 이 감정은 곧 보편적인 관동이나 동의의 이념이다. 이는 앞서 말한 특유한 미적 정서로서의 공통감이다. 아름다움 것 속에서 상징화된 우리의 심의는 한갓 쾌의 함수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어떤 순화와 고양(김광명, 『칸트에 있어 미와 도덕성의 문제』, 『칸트와 윤리학』, 민음사, 1996, 240쪽)”이 인간의 근원적인 미적 반

용운> 시에 대한 시론을 통해 보여준다. 그는 김우창에게 있어 가장 문학적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며, 그는 시적 언어에서 윤리적 도덕적 이론의 구체성을 마련한다. 그의 시론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윤리적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 한용운이 생산한 시작품에서의 구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궁핍한 시대의 시인』은 한용운의 삶과 시를 골드만의 『숨은 신』의 비극적 세계관과 비교하여 고찰한 글이다. 비극적 인간이란 자신의 의식을 세계에 노출할 수도 없고, 부정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 도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삶의 실존을 위해 선택한 인간 유형이다. 한용운은 시를 통해 비극적 세계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절대적인 사회 윤리의 비극성¹⁹⁾을 극복하고자 한다.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日帝下의 정치 현실에 대한 고발이지만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의 辨證法이다. 이것을 파악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韓龍雲의 민족주의적 윤리적 내용을 안다. 사실 그것은 깊은 윤리적 정의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²⁰⁾

-
- 응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미적인 문제를 보다 인간학적인 접근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김우창의 문학 비평의 특징인 심미성의 성격을 동시에 살필 수 있다.
- 19) “개인과 사회의 윤리를 별개로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일체적인 존재하고 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공적 차원에서 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개인의 차원에서도 공사(公私)의 윤리가 분리되어서는 만족할 만한 삶을 완성하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두개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가는 저도 답변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드린 대로 사회 윤리적인 측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개인 윤리 차원은 이차적인 것이다 하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 더 보탠다면 개인의 윤리가 완전히 멋대로 되어도 좋은 것으로 방치될 때,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사회의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이고, 그 개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윤리가 기계적으로 사회에서 명령하는 윤리를 실행하는 것이 되어도 불행한 일입니다. 사회 윤리는 일반적 규범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인간 현실에 맞게 유연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현장과 체험의 실험을 거치는 개인의 판단력에 있습니다. 개인의 유연한 판단 속에서 사회의 규칙은 구체적 현실에 맞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정되고 변경되고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우창, 『능률과 좋은 사회』, 『정치와 삶의 세계』, 삼인, 2000, 191-192쪽.
- 20)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전집 1』, 132-133쪽.

<당신을 보았습니다>의 윤리적 지향을 “민족주의적 윤리”이고, 일제하의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참모습은 “윤리적 정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님의 침묵>이 “그의 삶이 그리는 존재의 변증법에서 절대적인 요구로서 또 부정의 원리로서 나타나는 한 한계 원리²¹⁾”로서 ‘님’의 부재를 말한다면, <당신을 보았습니다>의 ‘당신’은 절대적 타자의 존재의 승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개체로서의 인간이 의존할 수 있는 가상의 절대적인 존재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김우창이 한용운을 통해 발견한 도덕적 가치의 성격은 종교와 같은 절대적인 것에 쉽게 인간 내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는 한용운의 시의 가치는 허위의식에 함몰되지 않고 도덕적인 것으로 돌아가 인간의 모든 역할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있다고 믿는다.

「나의 길」에서 우리는 도덕 철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부딪힌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어찌하여 神이 전지전능한 필연의 존재이면서 에덴동산에 善惡의 나무를 심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는가 하는 문제반치 어려운 문제이다. 「나의 길」의 주석만으로서 우리는 도덕철학의 체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²²⁾

그는 한용운의 시를 통해 발견한 것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초월해서 인간의 진정한 구원의 가능성을 한용운이 시적인 맥락을 통해 구성한 도덕 철학의 성격을 재현하였다 것에 있다는 것이다. 윤리적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공존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관계를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주체가 주체의 삶의 선택하는 행위는 개인 윤리의 의미에 보다 접근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객체로서의 삶이 부여하는 사회 윤리는 어떤 정언명령에 의해서 주체의 자율적인 삶을 구조를 훼손할 수 없다. 단지 주체가 선과 악이라는 선택에 대해 자신의 윤리적 자각을 통해 발견한 삶의 진실에 대해 각자의 “도덕 철학”을 형성할 수 있을 뿐이다.

21) 김우창, 위의 글, 130쪽.

22) 김우창, 위의 글, 138쪽.

韓龍雲의 詩세계는, 일상성의 세계는 아니다. 그의 시적 인식이나 도취는 범속한 세계의 자질구래한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의 세계는 전적으로 님을 위한 헌신이 가져오는 마음의 변증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물론 이 변증법은 마음과 세계의 긴장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세계는 구체적인 사물로 구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단순화된 것이다.²³⁾

그는 한용운 시의 '님'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그의 시에 대해 "도덕적인 관점에서 단순화된 것"으로 규정한다. 그는 윤리의 문제는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재현원리 너머 즉 예술 재현 원리의 초월성에서 고찰한다. 즉 삶과 예술 재현이 일치하는 동일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 그의 심미적인 것에 대한 거리 두기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심미적인 것은 윤리적인 즉 주체와 객체의 상호 조응이 가능한 지점에 놓여 있다. 시 언어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물"의 성격을 밝히는 과정은 부정의 변증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김우창이 말하는 구체성이 사물의 리얼리티를 형성하는 규정들의 밀도 있는 관계와 관련되고, 그의 시론은 본질적 규정들의 통일로서의 이론적 언어에 맞먹는 시적 진실의 담보가 일종의 실체적 요소와 관계의 밀도를 확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²⁴⁾ 예컨대 한용운의 '님'은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표상하는 상징체계이다. '님'의 비의를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과 욕망의 근원성을 질문하는 것이다. 즉 시적 직관을 통해 신비적 존재인 '님'을 체험하는 구체적 형식을 발견하는 것은 "감각적 생활"과 "신념의 변증법"²⁵⁾을 완성하려는 열망 때문이다.

그가 도덕적·윤리적 지형을 삶의 영역으로 미적으로 승화시키는 만큼이나 예술의 초월적 가능성을 현실의 토대에 두려고 한다. 그는 한용운의 시를 근대성에 대한 즉 미적 근대성에 내장되어 있는 재현의 비윤리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즉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현실을 부정하고 개인의 윤리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 지향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완성은 결국 일치하는 것이다. 그가 심미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²⁶⁾은 시가 지닌

23) 김우창, 「한용운의 믿음과 회의」, 『전집 2』, 221-222쪽.

24) 최유찬, 앞의 글, 426쪽.

25) 김우창, 앞의 글, 226쪽.

26) 문광훈, 앞의 책, 129쪽.

의미론적인 특질을 미적인 것의 단순한 재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주체의 혹은 창작 주체의 내면에 있는 윤리적인 것의 의미 맥락을 더욱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는 한용운의 도덕은 도덕률 속에 담아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을 하였다. 같은 논리로 진정한 시는 시의 언어에 담아질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객체화된 부분이 아니라 창조주인 주체이기를 원하고 주체를 통하여 전체에 이르기를 원했다. 이것은 그에게 全人的인 이상을 추구하게 하였다.²⁷⁾

그는 한용운이 시에서 도덕적 현실을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기제는 도덕 그 자체의 성격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주체와 객체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부분과 전체가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全人的인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세계와 인간의 참모습은 “정의와 진실은 어디까지나 부정의 전체적인 윤리적인 것이며 세상 또한 광명에 찬 것”²⁸⁾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현실의 긍정적인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조건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개별 인간의 의식이 새로운 이념에 대한 확신을 인간 개개인이 지닐 수 있다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용운이 시를 통해 사회 윤리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시어에 대한 개인 윤리가 총체적인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의 진리 추구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불화를 일으키는 한용운의 시에서 비극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2. 선악의 발견: 개인 윤리의 승인과 사회 윤리의 거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삶의 외부에서 부가하는 도덕적 법칙과 명령을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비도덕적 세계에서 개인의 윤리적 각성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것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한다. 공동체의 삶의 질서를

27) 김우창, 앞의 글, 144쪽.

28) 김우창, 앞의 글, 145쪽.

무너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적 인식을 동반하는 도덕은 개인을 심정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스스로의 삶의 질서를 구획을 지을 수 있는 법칙을 마련하고자 한다. 악의 세계에 대해 선의 내면적 세계를 발견한다는 것은 삶의 비극적 불화 단계를 넘어서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을 우선 시 한다. 세계를 심미적으로 인식하기보다 그러한 심미적 고찰이 윤리적 각성으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더 열린 정신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우창은 악한 세계를 구제하고 선한 개인의 삶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한 시인인 윤동주에 주목한다. 그는 윤동주 시에서 “의식 작용을 통하여 드러나는 자신의 도덕적 형이상학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며, 또 이것을 구체적인 삶으로 구현하는데 대한 관심”²⁹⁾을 발견하고 형이상학과 구체적인 삶을 매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윤동주에게 있어서도 심미적 발전을 통하여 자신의 윤리적 완성을 기하려는 충동이 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심미적인 관심은 그의 내면화를 가져오고 윤리적인 관심은 그를 시대의 어두운 장벽에 대면하게 하였다. 이러한 두 관심은 그의 품성의 양면이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심미적 관심은 세계의 감각적 양상과 자아의 교섭에 어울리는 것이기를 요구하게 된다.³⁰⁾

그가 윤동주의 시에서 “심미적 발전”과 “윤리적 관심”을 발견한 것은 미적인 인식만으로 세계를 구원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는 선과 악의 기로에 놓인 개인이 발견하려는 삶의 법칙은 “세계의 감각적 양상과 자아의 교섭”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서정시가 세계를 자아로 수렴한 후 생성되는 언어의 질서라면, 악하고 무질서한 세계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주체인 시인은 “자아의 美的 實存的 倫理的 관심³¹⁾”에서 시적인 정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자아”가 미적인 것과 실존적인 것이 도달한 곳은 ‘윤리적’인 공간이다. 윤리적인 것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경험하는 매순간마다 자각적으로 형성되는 개인의 세계에 대한 입장이다. “심미적 관심”은 세계를 내면화하고, “윤리

29) 김우창, 『시대와 내면적 인간- 윤동주의 시』, 『전집 1』, 175쪽.

30) 김우창, 위의 글, 『전집 1』, 176쪽.

31) 김우창, 위의 글, 193쪽.

적인 관심"은 세계로부터 개인을 보존할 수 있다. 그는 심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실존적 사실로서 매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윤동주가 시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러한 시적 표현을 동시에 삶에서 표출하고자 했던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시를 통해서 구현되는 세계의 진리는 우선 시를 창작하는 주체의 세계에 대한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가 경험론적 현실주의와 관념론적 승화사이의 비중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은 문학적 자율성과 문학의 실천성 모두로부터 구별짓게 하고, 예술자체보다 그에 대한 판단이 소중하며, 예술에서 궁극적으로 긍정되는 것은 미학적 성취이면서, 그에 대한 <판단>이다.³²⁾ 즉 <판단>은 사물 대상 일반을 개별적 사물로서 인식하지 않고, 사물과 사물 사이에 연계된 관계의 전체적인 거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시인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물을 판단한다는 것은 세계와 개인의 구별 넘어서 억압하지 않는 전체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는 시인이 사물과 세계를 윤리적으로 올바른 원근법적 시각을 우선 시한다. 즉 시적 이념의 구현은 "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며, 여기서 바르게 본다는 것은 가치의 질서"³³⁾을 의미한다. 시인이 세계와 사물을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시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시각 너머에 존재한 세계의 가치 질서를 확인하려는 의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시인의 언어는 단순한 언어적 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 체계에 의문을 표명하는 것이다.

詩的 또는 文學的 傳達은 既成品的인 觀念의 기계적인 전달일 수도 없으며, 또 그렇다고 客體化하여 어떤 特定事物의 속성이나 感傷으로 존재하는 餘白의 氣分일 수도 없다. 詩가 전달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 한복판에 있는 바, 더러는 찌그러지고 더러는 활달한 시의 언어가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구상적이며 감각적인 언어란 점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시적인 충동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감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풍부한 삶에 대한 갈구이다. 그리고 감각적 삶의 충동은 쉽게 육체적 쾌락에의 충동에 연결된다³⁴⁾.

시가 전달하는 것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다. 시가 매개하는 것은 의식적인 것

32) 황호덕, 앞의 글, 251쪽.

33) 김우창, 앞의 글, 43쪽.

34) 김우창, 「시와 정치」, 『전집 3』, 44-45쪽.

이 아니라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한 언어 즉 “감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시적 언어는 주관과 객관의 불일치를 재현을 통해 일관적인 전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시인은 언어를 통한 인간의 표현 원리를 해결하고자 한다. “구상적이고 감각적인 언어”가 구축하는 언어는 “감각적 삶에의 충동”을 완성하는 것이다. “감각”은 인간 오성을 통해 지각되는 세계이고, 개별 인간의 개인 윤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 윤리와 “시적인 충동”과 연결짓는 것은 “삶에 대한 갈구”의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즉 그는 시적 언어의 전달은 새로운 세계를 가상적으로 창조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적 언어의 구체성을 삶과 결부해서 윤리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윤동주가 비상하게 순수하고 깨끗한 인간이었던 것은 그의 시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그의 순수하고 깨끗한 골똥함은 양심이라고 할 때, 그의 양심은 얼핏 생각되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序詩」에서 표현된 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³⁵⁾다짐한, 적어도 표면적으로서 이루어지는 자기 성찰과 자기 파악의 여러 내용으로도 전개된다. 사실, 그의 양심의 특징은 밖에서 받아 온 어떤 도덕률에서 유도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내적인 성찰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³⁵⁾

그는 윤동주의 시가 “자기 성찰과 자기 파악”의 원리는 현실의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부과된 억압적인 도덕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윤동주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된 “내적 성찰”을 통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 개인으로서의 윤동주와 시인으로서의 윤동주가 합일되는 것은 윤동주 개인이 사회 윤리로부터 자신의 “순수하고 깨끗한 인간”을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양심”적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의식을 고수하려는 것은 억압적인 사회 윤리로 작용하는 “도덕률”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당위적인 가치의 법칙은 인간을 구원하기보다는 억압할 수 있다. 개인의 내면을 거쳐 획득되지 못한 언어는 세계와의 소통이 부정될 수 있다. 반성을 거치지 않은 인간의 언어는 세계 속에 존재하지만, 인간으로부터 탈피한 언어에 불과하다. 그는 개인의 윤리적 지향은 구체적인 예술 작품에 표현된 세계와 표현된 세계를 창

35) 김우창, 위의 글, 174쪽.

조하는 것이 완전한 합일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자화상」은 산문시의 부드러운 수사 속에 비교적 행복한 자기몰두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의 이미지 아래에 다른 의식, 즉 관조의 정지와 고독을 고통으로 느끼며 보다 높은 윤리적 자기실현을 요구하는 의식이 숨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³⁶⁾

운동주의 <자화상>은 자기애를 중심으로 세계를 자아 속에서 표현한 것이다. 개인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삶의 윤리적 각성을 통해 “윤리적 자기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자기 몰두에 가까운 내면으로의 침잠은 기존의 사회 윤리의 의미를 원천적으로 거부한 채, “관조”와 “정지”와 “고독”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삶의 실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윤리적 자각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김우창은 예술과 삶이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은 윤리적 자기실현”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운동주의 시에서 말하는 윤리적 근거의 적합성과 예술적 표현의 결합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예술이 윤리적인 지향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3. 경이의 발견: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공존

김우창은 한국의 모더니즘 시를 비판하면서 한국 현대시의 지적 태도의 태만을 지적한다. 즉 한국의 모더니즘 시는 모더니즘의 객관성에 몰두한 나머지, “현실의 중요한 감정과 주제와 상황에 대한 탐구를 가능케 하는 美的·歷史的 현실 구성³⁷⁾”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다. 그는 김현승 시의 긍정적인 성격을 “정확한 感覺과 도덕적 감수성³⁸⁾”을 지닌 것으로 지적한다. 즉 김현승 시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아울러 현실을 지배하는 우월적인 힘에 대한 근거를 도덕적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현승 시에 나타난 도덕적 감수성의 맥락은 이미 선형적으로 규정된 규율이라기보다는 사회

36) 김우창, 위의 글, 176쪽.

37) 김우창, 「抒情的 모더니즘의 經過」, 『전집 2』, 231-232쪽.

38) 김우창, 위의 글, 231쪽.

공동체의 체험의 한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에 대한 반응 양식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모더니즘 시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이기보다는 리얼리즘에 대한 체계로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김현승의 시적 경력에서, 서정적 보석에서 부재의 역설적 보석으로의 이행은 인간의 자기 인식과 역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김현승 말년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어둠과 부재를 통하여서만, 맑음과 밝음을 시사할 수 있었다. 어느 경우이나 그것은 어떤 정신적 응축과 기율로써 찾아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내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승에 있어서 시인의 보석은 밖에서, 안에서 또는 단순히 시인의 결의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에 와서 정신의 응축과 기우는 확대와 분방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시인들은 그것이 빛의 확대이든, 이 확대되는 에너지 속에서 그들의 탐구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³⁹⁾

그는 김현승을 “우리 시대에서 드물게 보는 모달리스트⁴⁰⁾”로 규정한다. 이러한 평가는 그가 시를 정의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즉 그는 시를 “생활 세계의 관심과 의도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말에 의하여 원초적인 체험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구성하는 활동⁴¹⁾”으로 간주한다. 김현승 시에 보이는 삶의 체험과 경험을 윤리적 실존의 시선에서 이루어진 시의 형식과 내용을 중요하게 여긴다. 시가 “부재의 역설적 보석”으로 이행하는 것은 시 장르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가 역사적 변화와 동일하게 변천하는 장르인 이상, 삶의 안과 밖을 동시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계기 역시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의 합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신의 응축과 기율”이 “시인의 결의”에 찬 시를 통해 구현되는 세계는 미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현실에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는「산업 시대의 문학」에서 문학이 담당해야 하는 기능을 윤리적 혹은 도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가 규정하는 도덕이란 “비현실의 원리”이다. 이러한

39) 김우창, 「시인의 보석」, 『전집 3』, 130쪽.

40) 김우창, 「김현승의 시-세 편의 小論」, 『전집 2』, 243쪽.

41) 김우창, 「시의 언어, 시의 소재」, 『전집 2』, 344쪽.

비현실적인 담론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은 “공동체적 유대 의식”이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를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던 공동체 의식은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자, 공동체 의식은 상실하게 된다. “도덕적 초월적 차원의 상실”은 문학을 내면에 밀폐된 것으로 전화시키는 것으로 변질된다. 그는 문학의 초월적 가능성을 “심미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한 후, 문학의 초월적 기능이 “도덕적인 내용을 담은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학의 영역은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의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는 “예술가의 사회적 기여는 어느 쪽에서도 가능한 것이겠으나, 보다 직접적인 발전에의 기여는 도덕과 생존과 예술이 합치되는 현실의 시점”⁴²⁾을 도덕과 생존과 예술이 조화롭게 미적으로 융합한다. 예술이 도덕과 하나의 이상적인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조건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예술이 지닌 도덕적 치유력을 담보하려는 행위는 일상의 맥락을 벗어난 지점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산업화를 통한 예술의 도덕적 치유력의 상실은 예술의 기원 즉 <절대적 심미주의>와 <절대적 도덕주의>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현실에서 현실의 부정적인 요인을 구제할 수 없는 윤리적 혹은 도덕적 기능을 예술을 통해 구제하려는 의식은 김우창 비평이 지닌 특징 중에 하나이다.⁴³⁾ 즉 예술이 지닌

42) 김우창, 「산업 시대의 문학」, 「전집 2」, 58쪽.

43) 오문석은 김우창 비평에서 “무기력해진 도덕의 기능을 예술이 대신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후, 그의 비평에서 도덕과 예술이 작동하는 맥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술은 경험적으로 주어진 재료들에게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그 통일성은 이미 재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에서 실현되는 통일성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도덕의 그것과 달리 이미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전체의 통일성이 이미 부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각 부분들은 아무리 자립적이라고 해도 전체가 제공하는 질서를 받아들인다. 예술에서 실현되고 있는 기적과도 같은 전체성은 산업사회를 통해 상실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삶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술이 도덕을 대신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삶에서 결되고 있는 도덕의 강제성을 예술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도덕적 교훈이나 정치적 구호, 강령 등의 강제력을 실어 나르는 단순한 도구가 될 수 없다. 만일 예술이 삶에 대해서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기존의 도덕의 강제성을 반복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술 내부에서의 전체성이 그러하듯이 예술은 삶으로 되돌아갈 때 조

예술 그 자체의 내면적인 인식 구조를 통해 현실의 비도덕적 혹은 비윤리적 구조를 구제할 수 있다는 인식은 예술의 생성이 현실의 생산물과는 다른 생성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시적 언어의 특이성은 시적 주체의 세계관으로 규정된다. 시속에 표현된 언어가 형성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이성은 작가의 사적인 논리 구조를 공적인 윤리 지평과 융합시키는 방식에서 찾아질 수 있다. 김우창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예컨대 한국 문학의 경우, 시와 소설을 포함하여, 주체와 객체를 통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시각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는 “詩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내용이 아니라 의미발생의 과정 자체이며, 그 과정을 통하여 마음의 驚異를 표현”⁴⁴⁾ 하는 것으로 시인의 언어가 지닌 특이성을 말한다. 시인이 형성할 수 있는 시적 언어의 구조는 단순히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미 내용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휘적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미 체계의 발생하는 지점 바로 그 자체이다. 이에 대한 접근은 심미적인 판단 기준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영역의 한계를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심미적인 기준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시란 不可視의인, 原型的의 관계 속에 可視의 세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정신 활동이며, 가치는 이러한 원형의 외부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可視라는 말을 했지만, 視覺이란 일정한 遠近法에 대한 관계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원근법은 바로 가치와 의미를 만드는 정신의 구조 활동에서 온다. 그러니까 가치의 지향성 없이는 詩는 사물을 볼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치의 문제는 최소한의 詩의 視覺을 위한 조건인 것이다.⁴⁵⁾

차 그 삶의 자발성과 일치해야만 한다. 산업화로 인해 파편화된 우리들의 삶을 예술이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술이 그러 보이는 전체성이 우리들이 삶의 표면에서 망각하고 있는 깊이의 전체성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예술의 전체성은 이미 삶의 깊은 곳에서 숨어 있는 전체성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 점에서 예술은 삶을 행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도덕을 대신하며, 삶의 자발성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오문석, 『1970년대 한국시론에서 보여준 내재적 초월의 방법-김현과 김우창의 경우』,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328-329쪽.)

44) 김우창, 「문학적 송신」, 『전집 1』, 364쪽.

45) 김우창, 「한국시와 형이상-하나의 관점」, 『전집 1』, 36쪽.

인간이 시적인 세계의 모습을 심미적으로 판단하는 것만큼 인간 내면의 윤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무릇 숭고한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⁴⁶⁾ 그는 이를 경이의 감정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정의 진폭은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대상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숭고한 감정이 담겨 있다. 시가 “비가시적인” 세계를 ‘가시적인’ 것으로 변용하는 과정은 정신의 “가치”를 승인하는 것이다. 가치의 범주는 “시적 시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과 사물을 본다는 것은 “원근법”에 따라 모든 관계를 일정하게 배열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가치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의 지향성”이 없는 시는 미적으로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시적 의미는 무의미할 수 있다. 즉 “가치”의 문제는 미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다. 미적인 것의 가치는 윤리적인 것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적인 의미에서의 감각에의 충실은 세계와의 즐겁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감각을 통한 인간의 확대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세상의 다양성을 즐기는 인간과 세계의 공존관계이다. 시의 감각적 충동은 감각의 탐닉이 아니라 세상의 경이에 대한 감각적 인식이다. 시인이 원하는 것은 다시 말하여, 감각적 삶의 혼수가 아니라 감각을 통한 세계에의 깨어남이다. 여기에서 이미 시적 충동은 스스로를 확대하려는 욕구는 이미 감각의 직접성속에서도 이렇게 내재해 있는 것이다⁴⁷⁾.

경이로움은 “감각”을 통한 “시적 충동”을 “감각의 직접성”에 내재하고 있다. 시적인 맥락은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것은 시가 지닌 주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는다. “시인의 주관은 시 속에서 언어화”⁴⁸⁾되는 과정을 거쳐 대상으로서 주어지는 세계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가

46) 그는 삶에 대한 경이로움을 윤리적으로 지향하려는 시각에 다소 미흡한 지형을 차지하는 시인들로 주지주의 시인과 청록파 시인들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언어 감각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언어의 의미가 그것이 표현하는 내용-그것도 당대의 또는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현실과의 대응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깊이 인식(김우창, 「시의 언어, 시의 소재」, 『전집 2』, 345쪽)”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 언어가 구축하는 삶의 경이로움에서 탈피해서 시적 언어의 숭고성을 망각한데서 비롯된다.

47) 김우창, 「시와 정치」, 『전집 3』, 45쪽.

48) 김우창, 「참여시와 현실적 낭만주의」, 『전집 3』, 514쪽.

문학 언어 특히 시인의 표현에서 감상 주체가 반응하는 시적 구조의 특이성을 경이감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미적으로 숭고한 것의 감정에 대한 것이다. 칸트의 숭고미에 대한 논의⁴⁹⁾처럼, 이러한 인식은 문학 작품 특히 시 언어가 지닌 숭고한 성격에 윤리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시적 창조의 과정이 형성되는 순간은 단순한 미적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행복한 욕망을 재구성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경이로움을 언어를 통해 구축하는 과정이 바로 시적 완성되는 순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의 형성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의식을 지닌 과정으로 이해되는 순간에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문학을 고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의 지향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도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것이다. 즉 규범이나 당위로서의 성격이 짙은 도덕적인 것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각을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윤리적인 성격을 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김현승의 시에서 시인은 부정적인 세계에 대해 경이로움을 가지고 현실에 접근하는 존재로 여긴다. 그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시적 창조의 과정은 가장 원형적인 의미에 있어서 행복한 욕망과 그 충족의 과정을 보여준다. 시인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조화의 경지를 체험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게 되고, 또 마지막 부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의 시적인 행복이 假像에 불과한 것임”⁵⁰⁾을 강조하는 시에 대한 확신에 도달한다.

49) “자연의 미의 감정과는 달리 그 혼동과 복잡화, 무질서와 황폐함에서나 그 크기와 위력에서 숭고의 이념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다. 자연의 미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우리의 외부에서 찾아야 하지만, 숭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의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자연의 표상에 숭고함의 감정을 불러넣는 우리의 심적 태도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중략) 숭고의 감정이란 본질적으로 도덕적 의식의 산물(김광명, 위의 글, 228쪽)”이다.

50) 김우창, 『詩·現實·幸福』, 『전집 2』, 99쪽.

Ⅲ. 나오며

김우창 비평은 철학적인 사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의 이론과 실천을 통해 예술이 인간 감정의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보여준다. 그의 비평이 지향하는 바는 예술 특히 문학이 인간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매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학에 대한 이러한 비평적 표출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그의 실제 비평은 이론적인 것을 선형적으로 제시한 후, 시작품 자체의 분석을 소홀히 한다. 이는 그가 이론의 구체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비록 이론의 발견을 작품 읽기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지만, 김영건의 비판처럼 문학 해석의 분석적 시각이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이론의 구체성은 무수한 실제 작품인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서구의 이론적 텍스트의 수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의 자생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의 이론의 현실적 근거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둘째, 그가 실제 비평에서는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 전자와 후자는 분명히 이론적으로 다른 지평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는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지 못한 채 실제 비평을 행하고 있다. 그의 실제 비평에서 다루어진 개별 시인들의 윤리적인 성격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라는 구분으로만 드러나 있을 뿐이다. 이는 추상적인 도덕과 구체적인 윤리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방식에 대한 면밀한 접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는 비평 행위를 작품의 현실과 실제 현실의 간격을 채우는 것으로 간주한다.⁵¹⁾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 비평의 경우는 시의 윤리적 성격은 시가 주관과

51) "비평은 작품에 그러지는 구체를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 물론 작품이 반드시 주어진 삶의 구체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 작품도 삶의 구체를 그려내면서 그 진실과 함께 허위를 들추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개는 간접적인 암시의 수법을 통해서이다. 구체적인 언어는 재귀적으로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 구조적 분석의 언어는 추상의 언어이다. 작품 자체가 삶의 兩義의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평의 추상적 언어

객관을 가장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그가 시를 통해서 본 것은 미적인 것의 의미와 윤리적인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 공간이다. 이러한 그의 시론에 나타난 성격에서 더 나아가 그의 시론에 내재된 정치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가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능성을 정치적인 것에서 찾고, 이러한 정치적인 것의 가능성을 윤리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가 윤리적인 것을 가장 구체적인 현상으로 보고 현실의 무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김우창, 미적 윤리성, 사회 윤리, 개인 윤리

참고문헌

-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97.
———, 『지상의 척도』, 민음사, 1981.
———, 『시인의 보석』, 민음사, 1993.
김경동, 『이성적 사회를 향한 한국 지성의 사색』, 『세계의 문학』, 1993 가을.
김광명, 『칸트와 윤리학』, 민음사, 1996.
김인환, 『기억의 계단』, 민음사, 2001.
김영건, 「심미적 이성과 철학-김우창의 '심미적 이성'의 개념」, 『철학과 문학비평, 그 비판적 대화』, 책세상, 2000.
김영민, 「정치적 인간, 인간적 정치 ; 균형과 섬세의 원숙한 배회」, 『오늘의 문예비평』, 1994. 12.
김상환, 「심미적 이성의 귀향」,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민음사, 1999.
김홍규, 「부분과 전체의 변증법」, 『세계의 문학』, 1981. 여름.
권오룡, 「문학의 위엄」, 『문학과 사회』, 1993. 가을.
곽광수, 「비평의 창조성」, 『세계의 문학』, 1997. 겨울.
이재선, 「정리와 모색의 이론」, 『문학과 지성』, 1979. 5.

로서 더욱 분명한 것이 된다”, 김우창, 「비평과 이데올로기」, 『전집 2』, 171쪽.

- 유종호, 『어느 심미적 이성의 초상-김우창 소묘』,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2001.
- 문광훈, 『구체적 보편성의 모험』, 삼인, 2001.
- 배미자, 『김우창 비평 원리-타자를 포용하는 글쓰기의 방식』, 고려대 석사 학위 논문, 2001, 7.
- 이경호, 『'칼로카가타아'의 넓이와 깊이-김우창론』, 『문학의 현기증』, 문학과지성사, 1999.
- 이태동, 『문학과 심미적 상상력-김우창의 비평 세계』, 『현실과 문학적 상상력』, 문예출판사, 2002.
- 한 기, 『혼돈 속의 사변; 비판 이성, 혹은 자유 지성의 역사』, 『합리주의의 문턱에서』, 강, 1997.
- 황호덕, 『체념과 해방』, 『세계의 문학』, 2002.
- 최유찬, 『김우창의 시론과 리얼리즘』, 『문예미학』, 1998.
- 최종길, 『김우창 비평 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1997, 12.
- Raval, Suresh, *Metacriticism*,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1.

<Abstract>

The Study on the Ethic in Kim, Woo-Chang's Poetry Criticism

Kim, Yong-H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thics in Kim, Woo-Chang's criticism. He wants to combine the an aesthetic sense with ethical value. In precious study, the aesthetic element in his criticism is only treated. So the present writer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ethical characteristic in his criticism. Because the poetry is held in high repute by him, I will inspect closely practical criticism. For example, his criticism on Han, Yong-Un, Yun, Dong-Ju, and Kim, Hyun-Sung is based on the ethical imagination. Especially, he divided the ethical thing into individual ethics and social ethics. He harmonizes with this ethics. Finally his 'aesthetic reason' is to aim to ethical value. In brief, he refuses the absolute aestheticism and admits the ethical imagination.

Key Words: Kim, Woo-Chang, the Aesthetic Ethics, Individual Ethics, Social Ethics